

지지율 정체에 '이해관' 분란까지...설연휴 앞둔 與 내우외환

선거 전략 수정론 '고개'...이재명 후보도 관련 글 공유 '불교계 반발' 정청태에 공개탈당 요구... '이해관' 논란 확산

대선 표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기를 이어가자 불안감이 증폭되며 선거전략 수정 요구가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정청태 의원이 촉발한 불교계와의 갈등이 '이해관'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논란으로 번지면서 내부 분란의 조짐마저 일고 있다.

여기에 연말연시 상승세를 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완연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모양새다. 급격한 하락세도 없지만 뾰족한 상승 동력도 나타나지 않는 30% 중반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애초 설연휴를 전후해 40%대 지지율에 안착하고 그대로 승기를 굳힌다는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경제를 위시한 정책 행보로 차근차근 득점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지나치게 정책 위주로 짜인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선거 운동에서 역동적,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도 최근 선대위 단체 대화방에 선거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선언한 '대통합-대사면'의 일환으로 총선 감점 규정까지 고쳐가며 연초부터 복당자를 받았지만, 복당 희망자가 755명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데다 호남 지역 지지율도 아직 예년 수준만 못하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며 "대구·경북·부울경에서 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해관'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서 "이해관이 찾아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때냐고(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면서 '붕이 김선달' 비유를 들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교계와 적절 수 없기에 송 대표 등이 연일 '불심 탈레기'에 나서서 상황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그간 국민의힘 선대위의 뇌관인 '윤해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과 비슷한 '이해관'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여진이 만만찮다. 불교계와 인연이 깊은 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같은

이 조금씩 수습되려는 국면에서 다시 '이해관' 발언으로 굶어 부스럼이 된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조영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솔직히 차마 말은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탈당했

으면 하는 의원분들이 주위에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나"라며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野 공천 갈등에 '원팀' 멀어지나... "구태" "방자" 정면충돌

권영세 "지도자급 인사가..." 저격에 홍 "방자하기 이룰 데 없어" 반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20일 '원팀'을 이루는 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전날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을 계기로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가 성사되는 듯했으나,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내용 조정을 보이고 있다. 만찬 다음 날인 이날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공개 발언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는 홍 의원의 물밑 요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전날 저녁 윤 후보와 독대할 자리에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그가 회동 직후 '정춘의 꿈'을 통해 공개한 대로 국정운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선언 등 두 가지 사항에 더해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전략공천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최 전 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권 본부장은 전날 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윤 후보에게 전해 듣고 즉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

다. 당내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진훈 전 구청장과 대구에서 '러닝메이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홍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본부장을 겨냥, "이견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했어야 어떻게 후보하고 얘기한 내용을 갖고 나를 비난하냐"라며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룰 데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 본인은 홍 의원의 요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전략공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미처 구성되지 않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을 돌렸다. 그는 기자들에게 "저는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공천은)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동길 교수, 안철수 후원회장 맡는다

"安, 부정부패 못하는 사람"

김동길(94) 연세대 명예교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안 후보는 20일 아침 서대문구에 있는 김 명예교수의 자택을 새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김 교수님께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

리러 왔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동지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부가 없는 것"이라며 "한 시대의 노인이지만 전적으로 보증하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다"고 화답했다. 김 명예교수는 "보기는 안전하지만 가까이 지내보면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 등 안 후보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

다. 그는 "정치권에는 건달이 많다. (안 후보는) 남욕이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워낙 인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은 욕심 때문에 지지분해지고 훌륭한 사람은 포기해야 하는 것은 깨끗이 포기하는 사람"이라며 "안 후보는 욕심이 없다. 개인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다. 야심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괴승" "무당 법사위"...민주당, '무속 프레임' 앞세워尹 맹비난

'신천지 압수수색' 쟁점화 김건희 통화 추가 공개 공격 자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무속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20년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무속인 조언에 따라 코로나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비교 학적인 일로 중대사를 결정했다가 국가가 망하게 된 사례를 보면 러시아가 괴승 라스푸틴의 꾀에 넘어가 멸망한 것과 (고려가) 공민왕이 신돈에게 놀아나면서 멸망한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라스푸틴'과 '신돈'에 빗대 윤 후보를 무속에 휘둘리는 위험한 지도자로 규정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던 의혹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당이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당 법사위를 둔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서도 윤 후보와 함께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 박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정영학-노취득으로 (대


장동) '50억 클럽'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꼭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 50억원이 어떻게 공정한 대가로 위장될 수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예고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추가 공개를 앞두고, 김씨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가 녹취 방송을 검토한 뒤 공적인 검증 영역에 초점을 맞춰 논평을 낼 것"이라며 "내용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 '김건희 통화' 첫 보도를 앞두고 '본방송 사수'를 다짐하며 '7시간 통화' 이슈를 띄우던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사생활 영역을 잘못 해집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MBC 보도의 파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자산 형성 의혹 등 공적 영역에서 문제 될만한 부분을 계속 '송곳' 검증하겠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